

# “경천사탑 평화의 상징 되길”

## 10여년 만에 본모습...9일 새 박물관서 낙성식

10여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경천사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자태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웠다.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낙성식이 8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문화부장 박연 스님을 비롯해 정동재 문화부장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경천사10층석탑의 복원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현고 스님이 대륙한 축사를 통해 보존처리와 복원에 힘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탑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으려면 탑에 담겨 있는 정신과 문화까지도 감안된 유물보존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낙성식에는 경천사10층석탑을 향한 경천사지에 다시 옮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동재 문광부 장관이 먼저 “경천사지에 복제탑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그보다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탑이 될 수 있도록 경천사지에 옮겨 세우자”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축사에서 “문화재는 제 위치에 있을 때 본래가치를 갖는다”며 “경천사지에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동관 ‘역사의 거리’에 세워진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 사진=고영배 기자

해 일본으로 밀반출 됐다 다시 반환돼 경북군 뜰에 세워졌으나 훼손이 심하게 해체 복원되는 등 기구한 운명을 겪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탑으로 간주되고 있다.

### 경천사10층석탑은

고려말 1348년 경기도 개풍군 부소산 경천사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대리석 탑으로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의 목조건축 및 불화도상 연구에 소중한 자료다. 1907년 일본의 공대대신 다나가 미사키에 의

박익순 기자

## 황룡사9층목탑 복원 단서 발견

### 개성 불일사 금동9층탑, 목탑 양식 간직

개성 불일사5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9층탑(사진)이 목탑형식인 것으로 확인돼 황룡사9층목탑 복원에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룡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991년 북한에서 발견된 개성 고려박물관 도록 영문판에 수록된 금동9층탑 사진을 8월 7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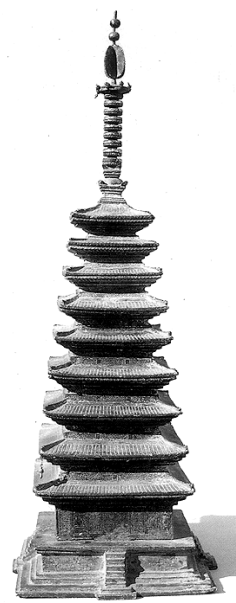
이 금동탑은 높이 37cm, 기단부 폭 13.8cm로 육신과 육개적으로 구성된 단아한 모양을 하고 있다. 기단 4면에 8개 문과 창문이 나오며, 처마마다 기와를 아름답게 조각한 목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불일사5층석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을 공개한 황 소장장은 “9층목탑에 관한 자료가 미진한 상황에서 금동9층탑이 황룡사9층탑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의 학자가 공동으로 문화재를 연구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황룡사 복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정작 황룡사의 중심인 목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복원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있다.

박익순 기자



## SBS에 수경사 반론보도 명령

### 언론중재委

지난 6월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해 수경사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반론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부장 신명중)는 8월 5일 SBS에 수경사 요구한 ‘SBS의 방송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고,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보살펴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명령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중재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성이 원료되지 않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수경사 그 후, 아동학대와 사라진 아이들의 진실’ 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불청은 8월 6일 “SBS가 수경사 관련 7월30일자 후속보도에서 객관적 진상규명을 주장한 수경사불교대책위원회의 성명서(7월 13일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SBS의 공정보도를 거듭 촉구했다.

김지연·유철주 기자

## 北 인권문제 불교서 해법 찾자

### 불교평화 생명포럼 27일 보광사서 개최

불교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림)와 불교포럼(공동대표 김연규)은 8월 27일 파주 보광사에서 ‘불교인권문제에 남북 상생의 길이 있다’를 주제로 ‘제2회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배경’ △연변대 민족연구원 전신

자 연구원이 ‘방문자가 본 북한인권 실상에 대하여’ △통국대 조준호 강사는 ‘불교사상 속의 생명권과 인권의 기초’ △서울대 변희욱 강사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가 직접 참가해 ‘북녘 동포들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을 모으고 있다. (02)725-4277

유철주 기자

## 달라이 라마 방한 촉구

### 이계진 의원 ‘정부 중 눈치보기 외교’ 비판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8월 11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제작 박용호)’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통상부의 무성의한 ‘중국 눈치보기’로 만해대상 수상을 위한 달라이라마 한국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공개 질문에서도 외교통상부에 달라이라마 방한 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외교통상부는 방문을 허용한 나라들 가운데 중국 측과 외교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는 대답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답변은 향후 공식적인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입국허

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달라이라마 방한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 재가연대 역사인물기행

#### 10월 달라이라마 친견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오는 10월 11~18일 ‘제1회 참여불교역사인물기행’을 실시한다.

재가연대는 인도불교부흥의 메카로 알려진 나그푸르를 방문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며, 인도 최대의 석굴 아잔타, 엘로라 석굴 등도 찾을 예정이다. (02)2278-3417 유철주 기자

## “지역사회 선도하는 교구로”

### 인터뷰 | 금산사 12대 주지 원행 스님

“상식이 통하고 무리없는 교구는 영으로 화합교단을 이루어 불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산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평상 스님)는 지난 8월 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제12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온 원행 스님(무주 안국사 주지)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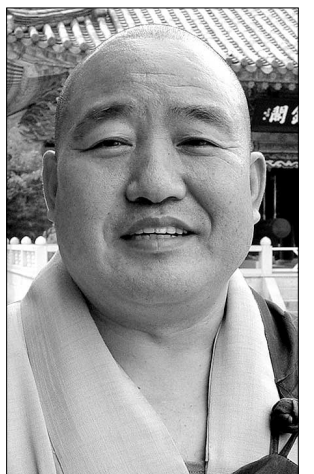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교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내려온 전통을 바탕으로 승풍진작과 포교, 교육,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강원, 선방은 물론 도심 곳곳에 포교당, 복지시설 등을 개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원만한 성품으로 불교계와 지역사회로부터 두루 신망이 두터운 스님은 “교구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문중을 떠나 문호를 개방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교인재 등용’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또 “국가행정이 지방자치제로 전환되는 이즈음 불교도 교구자치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승적, 교육, 검찰, 호계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관장하고, 인사, 행정, 예산은 교구에서 맡는 집중성 중단운영 시스템”을 제안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강원(83년), 중앙승가대를 졸업(87년) 했으며 조계종 중앙총회 11.12.13대 의원, 중앙총회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무주불교대학장과 나눔의 집 상임이사 겸 임장을 맡고 있다.

평소 불교의 대사회 활동이 미약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원행 스님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구촌 공생회’ 등 불교사회 및 봉사단체에 적극 참여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엽 기자

## 백중맞이 사찰행사 풍성

### 49세·영산재·경로잔치 등 열려

불교 4대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절(음력 7월 15일)을 맞아 전국 사암에서는 49일 천도제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는 우란분절 하루 뒤인 8월 20일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은 낙산사를 찾아 야생조류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1500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는 이번 방생에서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협조를 받아 날짐승 30여마리를 풀어주고 생명해방을 발원한다. (02)732-2115

49일동안 매주 한차례 법회를 열어온 서울 봉은사는 ‘생명해방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8월 19일 제3차

참살수행법사 일환으로 진행해 온 사경·하인거 회향·영산재, 아름다운가게 봉사점 개원 1주년 기념식 등을 개최한다. (02)511-6070

수원포교당은 8월 19일 영가천도재와 백중기도 회향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수원시의 협찬으로 열리는 경로잔치에서는 불자가수와 가름빈가 합창단 등의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031)245-9670

서울 불광사는 효자, 효부를 선발해 표창하고 효의 의미를 새긴다. (02)413-6060

박병영 기자

# 해방 6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 -반민족 친일과 재산보호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며

### 1. 서언

불교는 지난 1500년동안 우리 민족과 영육을 함께 하면서, 평화시에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때에는 민족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 왔다. 몽고군의 침입시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팔만대장경불사,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분연히 떨쳐 일어나 칼과 창을 손에 잡은 승군운동, 3.1운동을 주도한 만해스님, 용성스님 등 역사적 시련을 통하여 한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굳건히 확립하였다.

여기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제의 잔인한 압박으로부터 민족이 해방된지 6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친일명령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바이다.

### 2.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와 우리의 현실

지난 97년 을사조약의 하나이며, 대표적인 반민족 친일행위자인 이완용의 후손이 시작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는 보수적인 법원이 이완용후손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악과 실망감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송병준, 이재극, 이해창등 을사조약 및 한일합방의 공로자로 일본정부로부터 은사금과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파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줄을 이어 제기되고,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3.1운동의 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심히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헌법정신을 수호해야할 법원이 동족을 팔아먹은 댓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친일파의 재산찾기를 방지하고자 최용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반민족 친일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는 우리의 현실은 항일의 역사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심케 한다.

### 3. 봉선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게 된 계기

친일파들의 준동(蠢動)은 이제 산사(山寺)에도 미쳐,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 공로자로 선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금을 수여받은 이해창의 후손이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인 수락산 내원암(內院庵)의 토지 5만평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으로써 친년사찰 내원암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봉선사는 조선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교학중추를 담당하는 교종본산(敎宗本山)이고, 조선시대 승유역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불교를 위해 순교한 허응당 보우스님과 함께 불교중흥을 이룩한 사찰이며, 일제시대를 통하여 운암 김성수, 운허크스님과 같은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사찰이기도 하다. 특히 운허크스님은 봉선사의 전 조실로서 젊음을 ‘대한광복단’의 일원으로 항일운동에 바치셨으며, 해방후에는 불경의 한글화를 주도하여 ‘동국역경원’을 설립,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신 대강백이시다. 수행집단인 승가가 사회현실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임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기능이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봉선사는 운허 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바이다.

### 4. 결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탄생시킨 권력의 주체인 헌법제정권력의 선언으로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기존의 보수적 견해를 버리고,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위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민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이 나라의 1000만 불자들은 단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호국(護國)의 불사(佛事)에 동참, 우리민족의 앞날에 부처님의 정토(淨土)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불기(佛紀) 2549(2005)년 8월 8일

##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 합장